

# 옛 시가가 내뿜는 주술적 언어의 세계

시인 송재학씨가 뽑은  
《고려가요》



“가슴에 뭔가 서늘한 것이 지나간 듯했습니다. ‘말의 뼈’를 만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책에 실린 향가나 고려가요에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처음 자각했습니다. 말에 이끌리면서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무인(巫人)이 신들린 자라면, 시인은 언어의 들림을 받은 자다. 언어가 시인의 입을 열어 살풀이 할 때 시가 탄생한다. 언어의 넋을 풀어 삶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온 시인 송재학씨(45, 송재학 치과 원장). 그가 서가에서 뽑은 《고려가요》(전규태, 정음사)는 시인으로서 그의 운명을 점지한 책이다.

원래 그가 심중에 품고 있던 것은 다른 책이었다. 아마 《향가·여요(麗謠) 신석(新釋)》쯤 될까. 지금은 제목과 출판사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대학시절 읽었던 《고려가요》를 대신 선택했다. 그가 《향가...》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읽다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다.

“가슴에 뭔가 서늘한 것이 지나간 듯했습니다. ‘말의 뼈’를 만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언어의 주술에 걸려버린 거죠. 그 책에 실린 향가나 고려가요에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처음 자각했습니다. 말에 이끌리면서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의 문학수업은 향가와 고려가요 필사로부터 시작됐다. 매일 한편씩 열다섯번 노트에 베끼면서 다 외웠다. “구름을 열치매/나타난 달이/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로 시작되는 <찬기파랑가>,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아! 멀리멀리 비치시라!/어기야 어강도리/아으 다롱디리”의 <정음사> 등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옛 노래의 의미보다는 이미지가 다가왔습니다. 고매한 정신이 내뿜는 광휘에 매혹됐죠. 고어의 리듬도 언어감각을 키워줍니다. 향가와 고려가요의 세계는 바슐라르의 상상력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옛 시가가 말 자체의 힘을 보여줬다면, 바슐라르는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조합함으로써 존재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일까. 《얼음 시집》(문학과지성사)부터 《그가 내 얼굴을 만지네》(민음사)까지 그의 시는 ‘현란한 이미지의 성채’라 할 만하다. “꽃살무늬 안으로 드나들 땐 죄마저 환하네” “맛배지붕의 대웅전이 옥빛 손뼉을 치면서” 같은 표현이 그렇다. 그가 주조한 이미지에선 신라의 언어감각과 고려의 리듬, 그리고 바슐라르의 상상력이 버무려져 있는 셈이다. — 박천홍 기자

도서출판 이채에서 여러분께 꿈을 빌려드립니다

##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값 8,000원

이 책에 실린 아이들의 솔직한 자기고백은  
끝없는 킁킁한 터널을 어렵사리 지나는  
십대에게 자그마한 길잡이등불이  
되어줄 만하다.

강지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인터넷으로 中國 대륙을 밟는다!

### 박상수의 중국 인터넷사이트 여행기



값 12,000원



tel / 02)511-1891, 512-1891  
fax / 02)511-1244  
e-mail / min7gi@chollian.net